

## 시론

# 자연 · 환경 · 사람

-환경문학에의  
人性的 접근을 위하여-



이 재 근

(국립공원협회 총무이사 · 전문위 홍보분과위원장)

자연환경과 인간은 둘이 아니다. 자연환경은 지극히 인간적이어야 하고 인간은 언제나 자연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일체(一切)이며 일치(一致)이다.

환경(環境)이란 글자 그대로 인간을 둘러싼 경지(境地)인 것이다. 자연환경을 떠나 인간을 생각 할 수 없듯이 인간을 떠난 환경 역시 생각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란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사용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자연과 환경은 공간이고 인간은 문화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권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고 「환경문화」가 중시되어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97. 6. 4)이 나온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요컨대 환경문화의 토대는 자연이요 인간이며 그 내용은 자연사랑이고 인간생명존중사상이다.

사람들은 자연을 떠날 수 없어 나무, 숲, 물, 공기라는 환경을 두르고 있고 환경과 둘이 아니어서 축소된 환경, 다시말해 조경(造景)을 형성

했다. 그 중에서도 숲은 인간생명의 기원이며 터전이기도 한다.

오늘날 인류는 자연과학적 기술의 발달에 따라 편리하고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누리게 되었으나 그것이 행복만은 아니었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예컨대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파괴 및 지구자원의 고갈과 핵전쟁의 위기, 인간의 기계화 등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왔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인류는 현대문명의 현실을 검토해보고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老子和 莊子は 이미 2,300년전에 사람들이 자연적인 자기의 본성을 잃고 물화(物化)되어 가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莊子は 그때 이미 기계 사용의 폐단을 예견했다.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기심(機心)이 생겨 인간이 자기 본성을 잃고 물질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莊子에 따르면 물(物)은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물화(物化)되어 시공간이 온통 점유되고 말았다. 자연을 되찾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물화(物化)된 자연환경을 원상태로 복원코자 함이다.

老莊사상은 물질문명에 파묻혀 가는 현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를 내보인다.

첫째, 사람들이 물질에 속박당하지 말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속사(俗事)에 매이지 않고 산과 물 사이를 오고가며 시원스럽게 살아가는 신선의 모습을 말한다. 자연무위설(自然無爲說)에 다름 아니다.

둘째,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좀더 깊고 넓게 보아야 한다. 물고기와 새와 사슴과 사람의 입장과 관점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중심주의를 고집한다면 다른 생물들을 해칠 수 있다. 오늘날 인류가 부닥친 자연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물들을 전면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요구된다.

셋째, 오늘날 인류는 다원화시대를 맞고 있다. 획일주의는 이제 설 땅이 없다. 老莊에서는 일체 사물들을 그 자체의 성질에 따라 대할 것을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은 획일적 사실을 견어내고 갖가지 사물들의 다양한 성

질을 조화롭게 살려낼 수 있는 세계관으로 이끌 것이다.

자연과 환경, 인간이 둘이 아님은 동서고금 세계 곳곳 사람들의 전통적 사고와 자연친화적 생활방식에도 철저히 배어있다.

독일인의 삶에서 숲, 영국인의 삶에서 바다, 남북 미주인(美洲人)의 삶에서 호수와 폭포, 그리고 한국인의 삶에서 산 같은 것이다. 특히 근현대 철학의 본고장인 독일인의 삶과 그 문화에 있어 숲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것은 그들의 철학·문학·음악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헤겔철학에서도 숲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법철학」 서문의 유명한 격언을 통해 의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이데거철학에서 그의 「존재론」의 주요개념인 「무(無)의 밝은 빈터(Lichtung)라는 말은 「별채한 산림의 공지」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는 전후에 내놓은 그의 책에 「임도(林道·Holzwege)」 「숲길(Der Feldwege)」이라는 제목을 올리고 있다. 얼마나 많은 독일의 시인들이 숲을 노래하고 숲을 그려왔는지는 이루헤아릴 길이

없다. 시인 하이네도 『나는 푸른 숲에 가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산이 역사기록의 출발점인 단군신화에서부터 등장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로서의 산은 한국의 지리적 원형이자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사상이라 일컫는 한국인의 의식의 원형을 상징하는 형자(形姿)로서 한국역사의 원초에서부터 삼위태백(三位太伯)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고전 가운데 빼어나게 아름다운 고려가요 청산별곡(靑山別曲)은 『살어리 살어리 랫다. 청산에 살어리랏다』로 시작된다. 이밖에 많은 시조, 시가, 소설, 그림에서 산은 최대의 주제자리를 벗어남이 없다.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본 서양사람들에게 산은 오르는 봉우리, 동반하는 정상, 어택(공격)의 목표이다. 그러나 산 속에서 태어나 산에서 나온 많은 우리의 선인(先人)들은 산에 오르고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간다(入山)고 말한다.

산이 밟이며 집이며 일터라고 하는 강원도 산골 태생의 어떤 작가는 『산은 어머니이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 품에 안겨서 행복하고 산을 떠나면 모든 곳은 객지가 된다』고 적고 있다. 그들의 주관에 대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인(詩人)은 숫제 『나도 산이 었다』고 노래했다. 내가 곧 산이고 산이 곧 나라는 뜻이다.

이렇듯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나 있음」과 「산 있음」이 하나요 그것은 나와 자연과 환경이 둘이 아님을 말한다. 「산 경험」과 「삶 경험」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산과 한국인의 삶」「자연과 한국인의 삶」「환경과 한국인의 삶」을 생각해 보는 출발점에서의 인식이다.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과 계곡인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산과 숲과 물과 흙은 분명 삶의 근원이요 생활의 터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과 바다, 모든 자연환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샘이 되었고 마음의 고향으로 간직돼 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이 천혜의 자연환경이 극심한 훼손과 파괴오염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 전세계적인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 추세는 하나뿐인 지구의 자정(自淨) 능력을 상실시켜 곳곳에서 「환경종말론」

마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심각한 환경 문제는 결국 인간의 의식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 끊임없는 발전지향의 의식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어떤 눈으로 자연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냉철히 자문해야 한다.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전이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구조에서 인간의 영원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거대한 자연환경 - 땅과 물과 하늘은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의 사유물이 아니다. 인류의 폐부(肺腑)이며 삶의 현장이기도 한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당대에는 복원할 수 없다.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포크레인으로 산등성이나 하나 깎는 데는 한달도 안 걸리지만 흙을 쌓아 둔덕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1백년은 걸린다. 자연환경에 가한 상처는 것처럼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의 원초적 심성이랄 수 있는 사랑으로 감싸고 생명의 원천을 보호하듯 생명존중사상으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환경종말론은 그야말로 종말론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